

- 1. 종교다원주의 배격
- 1. 동성애 반대
- 1. 차별금지법 반대
- 1. 자유민주주의 수호

제1285호  
10월 18일  
2025년  
토요일

# 牧羊新聞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서울 다-07857 주간 www.mokyangnews.com(목양신문 지면보기 : www.aogk.org) 이메일 : mok2677@naver.com 전화 : 02)2677-9935~7 FAX : 0504)027-0897

## 세계하나님의성회(WAG) 제2회 World Sender Summit, 선교사파송 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



## 미전도종족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세계하나님의성회(WAG) 선교 리더십, “남은 땅 끝까지 선교사 파송”

제2회 World Sender Summit(WAGF World Mission Leaders) 모임이 전 세계 99개국에서 참석한 총회장과 선교위원장 등 205명의 지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9월 22일(월)부터 26일(금)까지 미국 미네소타, 제네바 크리스천센터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회의는 5일간 세미나와 미팅으로 구성되어, 복음이 미치지 못한 지역을 향한 전략과 비전을 나누는 뜻 깊은 시간으로 진행되었다.

마지막 날에는 80개국이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지역에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헌신하며, 전 세계적 선교운동의 새로운 전환점을 예고했다. 이번 회의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마 28:19-20)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실천하기 위한 국제적 연합의 장이었다. UPG·UUPG 선교 전략 논의, “남은 종족을 향한 집중과 연합”

이번 회의에는 특히 아프리카 지역 지도자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유럽·라틴아메리카·북미·아시아·중동 등지에서 활동 중인 선교 지도자들이 각국의 사역 보고와 선교 사례를 나누었다.

회의의 중심 주제는 ‘미전도종족(Unreached People Group, UPG)’과 ‘참여되지 않은 미전도종

족(Unengaged Unreached People Group, UUPG)’이었다. 참석자들은 여전히 복음이 닿지 않은 수많은 종족과 지역을 위해, 국가별 선교사 파송 계획과 협력(Partnership)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지역별 모임(Regional Meeting)에서도 기도회와 토론이 이어졌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825명의 선교사를 새롭게 파송하기로 결의하는 놀라운 결단이 있었다.

이번 포럼은 선교의 본질을 회복하고, 전 세계 교회가 ‘복음의 빈 땅’을 향해 다시 일어서야 한다는 공동의 사명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예하성 국제총회장, 세계 리더들과 협력 논의 본 교단 심용재 국제총회장(선교위원장)은 회기 중 아프리카, 서남아시아, 몽골, 중동 지역의 지도자들과 교제하며 상호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몽골과 아프리카, 서남아시아(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 등 일부 국가에서는 예하성에 선교사 파송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캄보디아 총회장(선교위원 겸임)과의 환담을 통해, 현지에서 파송된 예하성 선교사들의 안전과 사역 보호를 요청하였으며, 현지 교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 복음 사역을 확대해 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와 함께 각 나라 간 협력 강화의 상징으로 ‘The Doxa Partnership’ 결의문이 채택·발표되었다. 이는 세계하나님의성회가 국가 간 경계를 넘어 선교적 연대를 이어가겠다는 비전의 선언이었다.

“하나님의 세계 선교, 다음 세대를 향한 사명으로 이어가자”

이번 회의는 제1회 때보다 더욱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하나님의성회 미네소타 지방회의 헌신적인 섬김 덕분에 모든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은 “모든 순간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낀 회의였다”고 고백했다.

2년마다 열리는 World Sender Summit은 제3회 회의를 2027년 2월 23~25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개최하기로 결의하고 폐회했다.

세계 복음화를 향한 새로운 전환점

이번 회의를 통해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는 세계 하나님의성회 및 세계하나님의성회 선교위원회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앞으로의 선교 방향을 구체화했다.

새로운 선교사 모집과 훈련 프로그램 개발, 선교사 배출 및 파송 확대, 그리고 미전도종족(UPG·UUPG)을 향한 전략적 접근 등 “다음 세대를 위한 선교 비전”을 세우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이번 Summit은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다음 세대가 복음의 바톤을 이어가야 한다”는 선교적 사명을 다시금 일깨운 자리였다.

참석자들은 “지금이야말로 세계 교회가 함께 일어나 복음의 빛으로 세상을 밝힐 때”라며, 각 나라와 교단이 연합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궁극적 비전을 향해 나아가자고 다짐했다.

## 도전(挑戰)에 응전(應戰)하라’



조용목 목사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시 78:9-11)

군사는 전쟁의 날에 싸우기 위하여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닥을 때 무장한 군사가 전선에서 물러가 버린다면 지탄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본문에 기록되기를 “에브라임 자손은 병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하였습니다. 에브라임 자손들은 전쟁에 용맹한 인물인 여호수아를 조상으로 두었습니다. 병기를 갖추고 활을 가진 에브라임 자손들이라면 전쟁의 날에 마땅히 싸워서 승리를 얻어야 할 터인데 도리어 물러가 버렸다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물러가게 된 이유가 본문에 기록되었습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간 원인 중에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고 주의 율법을 따르기를 거절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구원과 행복을 위하여 많은 언약과 율법, 다시 말해서 약속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명령들이 자신에게 실제화 되고 체현화 되려면 그 약속과 명령들을 믿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적 체험이 되게 한 사람의 본보기로 기드온을 들 수 있습니다. 천사를 통하여 주신 표징과 양털로 시험한 표징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뜻을 확신하게 된 기드온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할 것이므로 너는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할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들고 싸우려 나갔습니다. 3백 명의 용사를 이끌고 메뚜기 떼같이 많은 미디안 사람들을 쳐서 승리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환난과 핍박과 유혹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가지 말고 전진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을 의지하여 싸우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싸우십시오. 그리하여 싸움에서의 승리가 가져다주는 여러 가지 전리품을 확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쟁의 날에 물러간 원인 중에 둘째는, 그들이 여호와와의 행하신 것과 저희에게 보이신 기사를 잊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기사와 이적을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많이 경험한 민족은 없을 것입니다. 애굽 왕의 학정으로 고통 당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모세를 그들의 지도자로 보내주셨고,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

엘 자손들은 애굽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금은 패물을 받아서 애굽을 떠났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여 이스라엘 자손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너고 애굽 군대는 모두 수장되었습니다. 밤낮의 기온 차가 심한 광야에서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시원하게 하였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양식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양식을 40년 동안 먹었습니다. 광야생활 사십 년 동안에 그들의 의복이 낡지 아니하였고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발이 부르츠지 아니하였습니다. 만약 전염병이 발생하면 삼시간에 때죽음당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치료의 은총을 입어 기적적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행하여 난공불락의 성이 무너지고 여리고를 무난하게 점령하는 기이한 체험을 하며 파죽지세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일이란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과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사를 묵도하고 체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브라임 자손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과 기사들은 다 잊어버리고 당면한 문제만 보았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워야 할 때 도리어 물러가 버렸습니다. 우리는 잊어야 할 것과 상기해야 할 것을 분별해야 합니다. 회개한 죄는 잊어야 합니다. 타인의 잘못을 용서했으면 잊어야 합니다. 지난날의 슬프고 괴로웠던 일은 잊어야 합니다. 다만 그로 인한 교훈은 마음에 새겨둘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상기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이적과 기사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지게 하려고 도전하는 갖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습니다.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승리할 수 있는 대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그 명령을 좇아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기사를 상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책을 가지고 응전하면 백전백승하게 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다른 성도들에게 모범을 보여주게 됩니다.

(은혜와진리교회)

## 10.27 WEA 서울총회 반대집회 연다

“거짓의 탈을 쓴 가짜복음 막아내고, 교회가 진리의 복음 지킨다”

WEA(세계복음주의연맹) 서울총회를 앞두고 한국교회가 이를 반대하는 집회를 준비하며 경각심을 촉구하고 있다. WEA 서울총회 반대집회 준비위원회는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배도와 배교의 물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27일(월) 서울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열리는 WEA 서울총회 반대집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WEA 반대운동연대”(조직위원장 송준길 목

사)는 오는 10월 27일(월), 서울에서 열리는 ‘WEA 서울총회 반대 집회’(오후 1시부터)를 앞두고 전국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와 참여를 요청했다. 이번 집회는 한국교회의 신앙 정체성을 지키고, 배도와 배교의 물결을 막아내기 위한 연합행사로 준비되고 있다.

연대는 그동안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학적 혼란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위협을 지적하며, WCC와 로마 가톨릭, 그리고 WEA가 보여온 종

교연합적 행보가 심각한 신앙 훼손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2013년 부산에서 열린 WCC 총회와 2016년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WEA 세계지도자대회를 언급하며, “한국교회가 바른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혼합주의와 배교적 흐름 속에 휩쓸릴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종교다원주의적 구원관 거부 ▲WCC 및 가톨릭과의 연합 반대 ▲한국교회의 신앙적 순결 회복 등을 천명하며, “1517



년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 한국교회가 다시 성경적 복음 위에 굳건히 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끝으로 송준길 목사는 “WEA 서울총회는 단순한 국제 행사가 아니라 한국교회의 정체성과 직결된 신앙적 시험대”라며 “한국교회가 깨어 기도하며 거짓 복음의 탈을 쓴 혼합주의에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집회는 한국교회가 하나 된 마음으로 복음의 진리를 지켜내고, 후대에 바른 신앙을 전수하기 위한 결단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반대집회 준비위원회는 ‘WEA 서울총회 반대집회’ 홍보 인쇄물 및 배포물 신청을 받고 있으며, 자세한 문의는 ☎ 010-6642-4131을 통해 가능하다.

## “WEA 서울총회 측은 정확한 입장을 밝히라!”

WEA 서울총회 반대운동연대 조직위원회 성명발표

“예수님의 이름 외에는 다른 이로써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행 4:12).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다른 종교에도 구원자를 두어서 구원한다는 종교다원주의가 이단이 아닌지 ‘WEA 서울총회’ 측은 명확하게 그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또한 성경은 “예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고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기록하고 있다(엡 2:8) 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달리 사람의 선한 마음과 의로운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행위 구원론자들이 이단이 아닌지 이에 대해서도 WEA서울총회 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런 종교다원주의와 행위 구원론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고, 성경의 근간을 깨뜨리고 변개시키는 이적 행위이며, 자신들의 인간 사상을 하나님 말씀 보다 우위에 두는 반역 행위자들로서 이들이 바로 WCC와 로마 가톨릭이다. 이런 이들이 이단인지 아닌지 WEA서울총회 측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WEA 서울총회 측은 WEA는 WCC와 로마 가

톨릭과는 다른 단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단지 결만 다를 뿐, WEA는 그동안 종교다원주의 WCC와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을 품고 온 포용주의의 정체성을 보여 왔고, 줄곧 그 틀과 뜻을 함께해 왔다.

WEA는 1997년에 WCC와 로마 가톨릭과 함께 미국 풀러신학교에 함께 모여 만든 것이 GCF라는 Global Christian Forum이고, 이 GCF를 통해 WCC와 로마 가톨릭과 뜻을 같이 해왔던 것이 WEA이다.

WEA(NAE)는 복음을 방자하여 성경의 권위를 부정하는 자유주의를 포용했고, 행위 구원을 주장하는 로마 가톨릭도 포용하고, 따라서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도 포용하며 태생된 정체성을 가

졌다. 이 같은 자신들의 노선을 신복음주의라 하였다.

이러한 신복음주의 WEA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복음주의가 아니다. 저주 받을 것 외 다른 복음이 다. (갈 1:6-9) 뿐만 아니라, 또한 WEA는 1517년 교회 개혁(종교개혁)으로 탄생한 개신교회의 이질적인 집단일 뿐이다.

개신교회는 오직 성경에 기초한 교리, 제도와 전통을 가진 로마 가톨릭과 배격하고 로마 가톨릭을 동종으로 끌어안은 본래의 교회를 성경적으로 바르게 개혁하고 복음화시키며 역사를 이어온 정통 기독교회이다.

2면으로 이어집니다



# ‘우리 아이·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 여의도에서 열려

9월 27일(토)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5만 명이 모여 <거룩한방파제통합국민대회>(대회장: 오정호 목사, 거룩한 대회 주요 참석자: 박한수 목사, 심하보 목사, 안희환 목사, 주요섭 목사, 염보연 목사, 신상철 목사, 김원평 교수, 이웅희 교수,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 이하 거룩한 대회)를 열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를 위하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대한민국을 살리자는 피 끓는 호소와 함께 온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국민대회였다.

이날 거룩한대회에서 함께 다뤄진 문 제점은 성평등가족부의 확대와 개편 반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변경 반대, 낙태 전면 허용반대, 약물낙태 허용반대, 생활 동반자법 반대, 포괄적차별금지법 반대, 그리고 종교의자유침해 반대등을 외쳤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며,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정신 과 영혼까지 좀먹게 하는가? ‘성평등가족 부의 개편’은 성평등(젠더) 가치 확산과 여성·가족 중심에서 성소수자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포괄하여 제도를 개편 하려는 것으로, 성경에서 한남자와 한여



자로서 가정(창 2:24)을 기초로 하는 것 을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것 때문이다.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변경’은 신체적 수술 없이 성별을 바뀌주는 제도로,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할 때, 군 복무, 스포츠 선수 선발, 남녀의 탈의실 사용, 화장실 이용 등에 있어 사회적 충돌 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윤리적, 도덕적 가치 파괴가 이뤄진 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 로 창조하신(창 1:27) 것을 정면으로 부

정하여, 심각한 반성경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낙태 전면 허용’ 문제도 모든 상황에서 임신 중단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게 됨으로, 태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시 139:13-16)으로 인정하 지 않는 생명 경시사상이 판을 칠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앞세워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를 멸망으로 가 게 하는 요인이 된다.

## 기독교한국침례회, 제115차 정기총회 개최

총회장 최인수 목사 선출...정체성 정비 질서있는 업데이트



기독교한국침례회는 제115차 정기총 회를 전주 새소방교회에서 갖고, 교단을 정비하는 여러 안건들을 처리했다.

신임 총회장은 최인수 목사가 선택 됐다. 지난 9월 22일부터 24일까지 치러진

이번 총회는 정계안 전면 부결과 절차 중 심의 회무 운영, 그리고 정체성 정비를 통 한 ‘질서 있는 업데이트’를 추구했다.

특히 논쟁을 불러온 정계 의제들은 먼 주고 교단의 표지와 신앙 기준을 다듬는 일에 초점을 맞췄다.

둘째 날 회무는 규약과 정관, 위원회 규정 등 제도의 틀을 정비했다. 12조 3항, 27조 4·5항 등 일부 조항을 손질했고, 지방회 시취규약과 각 기관 정관, 선거관리·규약·위기관리위원회 규정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무 보고는 자료대로 인준하되 정 계 관련 내용은 덜어내고, 정점은 신안 건에서 재검토하기로 정리했다. 보고와 인준, 삭제와 이관을 분리해 진행하면서 회무의 과열을 피하고 절차의 균형을 지향했다.

김운유 목사 제명안은 당사자의 사 과와 해명이 있었지만 표결에서 찬반이 엇갈리며 부결됐고, 한국침례신학원 피염민 총장 정계안도 큰 표차로 무산 됐다.

피 총장 정계안의 경우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러면서 총장 정계안 자체를 폐기했다.

이명백하다. 그러므로 WCC와 로마 가톨릭과 함께 WEA도 이단인 것이다.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WEA서울총 회를 유지해서 개최하려는 사랑의교회 오정호 목사는 더 이상 한국의 개신 교회를 파국과 혼란에 빠뜨리지 말고 회개하고 WEA서울총회를 철회해야 한다.

1517년 교회 개혁으로 비롯된 개 신교회는 비 성경적인 교리와 제도와 전통을 가진 로마 가톨릭을 배격하고 WCC와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 한다.

그러나 WEA는 개신교회가 배격하 는 로마 가톨릭과 WCC를 포용하고 뜻 을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주의이며, 개신교회와 이질적인 다른 집 단일 뿐이다.

하여, 이질적인 주제 WEA 서울총회 를 개최한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처 사이며 한국교회를 더 빠르게 매몰시 키는 행위이기애 강력하게 규탄하는 바이다.

주후 2025년 10월 2일  
WEA 반대운동연대  
조직 위원장 송춘길 목사

# 예장 정통총회 제61차 정기총회 개최

“하나님을 갈망하자” 하나님 중심 신앙 회복 다짐



양정섭 목사  
예장정통총회장

대한예수교장로회 정통총회(총회장 양 정섭 목사)는 지난 9 월 22일(월) 합동 측 박복경 목사에 의해 창립된 지 61주년을 맞아 평안교회에서 제 61차 정기총회를 개최 했다. 이번 총회는 1부 창립기념예배와 2 부 정기총회로 진행됐다.

1부 예배는 상임총무 임정태 목사의 사회로 시작되어 경기노회장 민경구 목 사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 총회 장 양정섭 목사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총회장 양정섭 목사는 ‘하나님을 갈망

하자’(시 42:1-2)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며,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고라 자 손이 모세와 아론을 대적해 하나님을 거 스른 결과로 고통을 받았던 사건을 교훈 삼아 성도들에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할 것을 권면했다.

양 목사는 “우리의 삶 길은 권력이나 물질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데 있다”며 “예 수님께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마 5:6)고 하셨듯이 하나님을 갈망 하는 삶이야말로 교회와 신앙의 본질”이 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회의 생명은 주님을 붙잡는 데 있으며, 하나님께 주리고 목마름으로

총회와 교회를 붙처럼 일으켜 세워야 한 다”고 당부했다.

설교 후에는 서부노회장 전대식 목사 가 제61차 정기총회를 위한 특별기도를 드렸으며, 총회장 양정섭 목사의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쳤다.

이어서 진행된 2부 정기총회는 부서 기 입세준 목사의 기도과 서기 전대식 목 사의 총대보고 후, 총회장 양정섭 목사가 정족수 성립을 선언하며 개회했다. 회의 료서기 최은희 목사를 임시 서기로 임명 하여 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했다.

전 회의록, 사업보고, 재정보고, 각 노 회 및 임원회 보고는 유인물대로 받기로 결의했다.

## 대학원 외국인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개최

성결대, 2025학년도 2학기 “125명 글로벌 신입생 맞아”

성결대학교(www.sungkyul.ac.kr, 총 장: 정희석)는 성결대 학술정보관 6층 아 립 국제회의실에서 9월 18일(목) 오전 10 시 2025학년도 2학기 대학원 외국인 신 입생을 위한 ‘2025-2대학원 외국인 신입 생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이번 오리엔테이션에는 베트남 51명, 우즈베키스탄 57명, 네팔 17명 등 총 125 명의 외국인 신입생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정 적인 한국 유학 생활과 원활한 학교 적응 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입학 절차와 출입국 관리, 생활 안내, 장학 제도 소개 등 실질적인 정보가 제공됐다. 또한 학생 간 교류의 장을 열어, 학문적 여정뿐 아니라 문화적 소통의 기회도 함께 제공 했다.



성결대 정희석 총장은 환영사에서 “먼 타국에서 학문과 경험을 향한 열정으로 성결대학교를 찾아온 여러분을 진심으 로 환영한다”며 “성결대학교는 최상의 교육 환경과 연구 기회를 제공해 여러분 이 학문적 성취를 넘어 세계 공동체에 기

여하는 지식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 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의 다양한 문화와 시각이 캠퍼스를 더욱 풍요롭게 할 것이며, 성결 대 공동체는 언제나 곁에서 함께할 것”이 라고 강조했다.

## 구세군, 금융사들과 추석맞이 전통시장 나눔

하나은행, 미래에셋증권, KB손해보험, 신한카드



구세군 한국군국(사령관 김병윤)은 추석 명절을 앞둔 지난 10월 1일, 금융감 독원을 비롯한 주요 금융사들과 함께 서 울 양천구 목사랑시장을 방문해 전통시 장 활성화와 소외된 이웃 지원을 위한 나 눔활동을 진행했다.

구세군은 매년 금융권과 협력해 추석

명절 전통시장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 다. 올해는 금융감독원, 하나은행, 미래에 셋증권, KB손해보험, 신한카드 등 5개 기 관이 참여했다. 이들은 공동으로 마련한 9천만 원의 후원금으로 떡, 과일, 건어물 등 생필품과 전통시장 상품권(온누리상 품권)을 구입해 지역사회 취약계층과 사

회복지단체에 전달했다.

행사에 참석한 구세군 한세종 서기장 관은 “금융권과 협력해 전통시장 나눔을 이어갈 수 있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명절마다 이웃들과 함께하며, 어려운 시 기일수록 지속적인 연대를 통해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을 전하겠다”고 전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 원장은 “이번 나눔 이 전통시장 상인과 어려운 이웃들의 따 뜻한 추석을 보내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 다”며 “금융권의 지속적인 상생 노력이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이번 금융권 추석 나눔을 통해 구세군 은 네트워크를 활용해 수도권 사회복지 시설 15개소, 2천여 명을 지원했다.

## 기드온신학교동문회 세미나 개최

다양한 순서 갖고 힐링의 시간 가져

기드온신학교동문회(회장 권혁길 목 사)는 지난 9월 22일부터 23일까지 충남 수안보 온천랜드호텔에서 ‘우리를 회복 시키소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갖고 동 문회가 나아가야 할 길을 논의하는 한편, 다양한 순서를 통해 영육간의 힐링하는 귀한 시간을 가졌다.

첫날 개회예배는 부회장 하동근 목사 의 사회로 소백산기도원 원장 김의탁 수 도사의 대표기도, 동문회장 권혁길 목사 의 시 60:1 말씀을 본문으로 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제목의 설교 순으로 진행됐다.

계속된 예배는 수도사대표 이옥란 수

도사의 특별인사, 총무 정지한 목사의 광 고 후 윤종환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이어진 세미나는 외부 강사와 동문회 선배들이 주축 강사가 되어 강의를 했다. 첫 번째 세미나는 외부 강사로 ‘칭찬의 기적’ 저자인 유병곤 목사(새울산침례교 회)가 ‘칭찬합시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으며, 두 번째 세미나는 동문강사로 예 장대신 증경총회장 유덕식 목사가 ‘성인 운반자’라는 주제로 강의를 했다. 세 번 째 세미나는 용문산기도원 원장 나서영 목사가 ‘도리학’에 대해 강의를 했다.

오후 시간은 용문산 기도원 발전을 위 한 토론회로 이날 참석한 동문회원들은 격의 없는 토론과 함께 동문회 발전과 용 문산기도원을 위한 뜨거운 릴레이 기도 시간도 가졌다.



목양신문은 종교다원주의를 배격합니다! 동성애자는 사랑으로 품지만 동성애는 반대합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역차별 받게 되는 일이 없도록 제정을 반대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합니다!

구독문의(우편발송요금) 02)2677-9936    광고문의 02)2677-9936    FAX 0504)027-0897  
웹하드 : ID mok677 PW 5277    E-mail : mok2677@naver.com



1 생명의 말씀 1



엄하석 목사

-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총회장
- 주성교회 담임

75사 제2회 실행위원회에 참석하신 정 책위원 여러분, 각 지방회장 동역자 여 러분, 올해는 폭염과 폭우로 일상이 힘 드셨을 터인데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 사람의 일생은 너무 짧다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 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시편 90: “우리 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 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 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시편 39:5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 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 는 없는 것 같아오니”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지난 날이 얼마나 빨리 지나 갔 는지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안개요, 날아가며, 너 무 짧다는 것입니다.

2. 내일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내일 일은 고사하고, 한 지 앞도 알지 못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허탄한 자랑을 하는 사람은 어떤 도시에 가서 일 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 라 계획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랑은 다 약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 미래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 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미래는 내가 세 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미래 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인 정하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이것을 인 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잠 16:33)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 니라”

(잠 16:9)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 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4. 내게 향한 주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알지 못하는 내일의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 더 시급한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을 어떻게 살 것인가입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어떻게 시간을 보내고, 어떻게 재물을 사용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지를 생 각하며 사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합 니다.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이며 역사 의 주관자되십니다.

(계 1:8)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 더라”

오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내일 의의 길로 인도 하십니다. 불확실한 내일에 대한 계획 을 세우는 것보다, 오늘 내가 어떻게 주 의 뜻을 좇아 살 것인가를 주께 구해야 합니다.

(마 6:34)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 지 말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오늘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 내일 감 사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의 이 만남 의 관계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달아 만나면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존중하 고, 배려하며 기쁘게 살아가십시오.

논평

한국교회언론회

우리 아이, 한국교회,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9월 27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는 5만 명이 모여 <거룩한방과제통합국 민대회>(대회장: 오정호 목사, 거룩한 대회 주요 참석자: 박한수 목사, 심하보 목사, 안희환 목사, 주요섭 목사, 염보연 목사, 신상철 목사, 김원평 교수, 이용희 교수, 조영길 변호사, 지영준 변호사 등, 이하 거룩한 대회)를 열었다. 왜 모인 것 일까? 정치적인 집회인가? 이익집단의 외침인가? 아니다. 자라나는 다음 세대 를 위하고, 한국교회를 세우고, 대한민 국을 살리자는 피 끓는 호소와 함께 온 국민들을 깨우기 위한 국민대회였다.

이날 거룩한대회에서 함께 다뤄진 문제점은 성평등가족주의 확대와 개편 반대,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변경 반대, 낙태전면 허용반대, 약물낙태 허용반 대, 생활동반자법 반대, 포괄적차별금 지법 반대, 그리고 종교의자유침해 반 대를 외쳤다.

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며, 우리 사 회를 어렵게 하고, 사람들의 생활과 정 신과 영혼까지 좀먹게 하는가? ‘성평등 가족주의 개편’은 성평등(젠더) 가치 확 산과 여성·가족 중심에서 성소수자와 다양한 형태의 가족까지 포괄하여 제도 를 개편하려는 것으로, 성경에서 한 남 자와 한 여자로서 가정(창2:24)을 기초

로 하는 것을 해체하고 파괴하려는 것 때문이다.

‘성전환 수술없는 성별변경’은 신체 적 수술 없이 성별을 바꿔주는 제도로, 법적 성별과 생물학적 성별이 불일치할 때, 군 복무, 스포츠 선수 선발, 남녀의 탈 의식 사용, 화장실 이용 등에 있어 사회 적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 또 윤리적, 도 덕적 가치 파괴가 이뤄진다. 무엇보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종교, 성적지향, 법법 전과, 이념 사상 등에 관하여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양성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혐오’의 굴레를 씌워 구속하려는 것이다.

도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창1:27) 것을 정면으로 부정하여, 심각 한 반성경적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낙태 전면 허용’ 문제도 모든 상황에 서 임신 중단을 개인의 권리로 인정하 게 됨으로, 태중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주신 고귀한 생명(시139:13~16)으로 인정하지 않는 생명 경시 사상이 판을 칠 것이다. 이는 여성의 자기 결정권만

앞세워 생명의 존엄성을 무시하는 것으 로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며, 우리 사회 를 멸망으로 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약물 낙태 허용’ 문제도 임신된 태아 를 약물로 살해하는 것으로, 생명 경시 문화와 함께 여성에게도 신체적, 정신 적 부작용과 동시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인간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불법적 행위가 된다.

위 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성별, 종교, 성적지향, 법법 전과, 이념 사상 등에 관 하여 차별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으 로, 이를 통하여 양성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대하여 ‘혐오’의 굴레를 씌워 구속하려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 대신 사람들에게 굴복시키려는 반종교적이 고, 반기독교적인 제도가 될 것이다(행 5:29)

따라서 이런 악법(惡法)들은 하나님 의 창조 질서의 왜곡과 부정, 생명 경시, 가정 제도의 해체, 신앙·종교·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며, 비민주적, 반종교적, 반기독교적인 제도를 구체화, 확립화하 려는 것인바, 당연히 반대하는 것이 대 한민국의 자유시민으로서, 하나님을 경 외하는 백성들로 마땅한 집회였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자라나는 세대 와 한국교회와 우리 사회를 향하여 쓰 나미처럼 죽음과 패망의 물결이 몰아치 고 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한국교회 에 허락하신 ‘진리의 담보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 주권’을 내세워 죽음의 문화에 대항하므로, 이 나라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자라나는 다음세대를 살리는 일에 교회가 충성되게 하나로 뭉치며, 거룩한 방파제를 높이 쌓아야 한다.

동정

전주기독교군대역사기념관 신정호



예장 통합 총회장을 지낸 신정호 목사(전주 동신교회)가 전주기독교군대역사기념관 제2대 관장으로 선임됐다. (사)

전북기독교성지화협의회 법인 임사이사회는 지난 9월 30일 인사위원회에서 추천한 신정호 목사를 만장일치로 제2대 관장에 선출했다. 신임 관장 신정호 목사의 임기는 2025년 10월 1일부터 2028년 9월 30일까지 3년이다.

美작 힙스 목사 한국교회 위해



미국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치노힐스 갈보리교회 잭 힙스(Jack Hibbs) 목사와 교인들이 한국의 손

원보 목사(세계로교회)와 교회들을 위해 기도했다. 최근 이 교회 예배 쇼츠 영상에는 한국교회가 직면한 신앙의 위기와 종교 자유 침해 상황을 놓고 함께 중보하는 모습이 담겼다.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 규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저지를 위한 국민 모임’(이하 방미워지지모임)은 9월 30일 오후 2시 40분 국회 소공동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을 강력히 규탄했다. 기자회견은 박소영 공동대표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북한인권세계대회



북한인권세계대회(조직위원장 임창호 공동대표)가 ‘그들을 자유케 하라’(Let Them Be Free)라는 주제로 오는 10월 22

일부터 24일까지 서울광장과 더플라자호텔서울에서 열린다. 이번 대회는 2005년 미국 주도 북한인권국제대회 이후 20년 만이며, 한국의 북한인권민간단체협의회(9개국 76개 단체)와 국제인권재단이 공동 주최한다.

목양시론-한국청년 캄보디아 사기사건 피해 대처

캄보디아에서의 사기(詐欺) 산업에 희생되는 한국인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나라의 22살 된 대학생이 끔찍하게 살해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청년은 캄보디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기(詐欺) 산업에 걸려 든 것이다. 현재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납치되는 건수는 올 들어 8월까지만 해도 330건에 달한다. 이는 2022년, 2023년에 10~20건이던 것이, 갑자기 수십 배로 늘어난 것이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이 납치되는 경우는 고수익을 미끼로 해외 취업에 나섰다가 범죄조직에게 납치되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는 관광객과 사업자를 대상으로 납치와 정부살인이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 지금 캄보디아는 ‘제2의 필리핀’이라고 불릴 정도로, 한국인에 대한 납치와 폭력과 살인이 벌어지고 있다.

현재 캄보디아에서는 사기 산업이 활개를 치고 있다. 국제 인권 단체 ‘국제 엠네스티’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캄보디아 내 대규모 사기 작업장은 무려 53군데에 이르고, 미국 싱크 탱크인 ‘미국 평화연구소’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캄

보디아에서의 사기 산업 규모가 국내 총생산의 절반에 달하는, 연간 125억 달러(한화 17조 9,5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 우리 국민들이 들어가 인권 유린을 당하는 것은, 정부의 책임도 크다고 본다. 현재 캄보디아에는 우리 교민 1만 명이 살고 있고, 관광객도 연간 20만 명이 찾는다. 그렇다면 지난 해부터 한국인의 납치 사건이 갑자기 수십 배로 불어난 상황을 예의 주시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이다.

지금 캄보디아에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범죄 조직이 활개를 치고 있고, 캄보디아의 공무원이나 경찰조차 뇌물에 취약하여 범죄자들의 피난처가 되어 범죄의 싹을 중심지가 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우리 정부는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다.

정부는 하루속히 현지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를 담당할 경찰 조직과 관련 경찰을 신속히 파견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더 이상의 국제 범죄 조

직에 의하여 한국인들이 억울한 희생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국내에서도 ‘고수의 아르바이트나’ ‘누구나 월 0000만원’과 같은 낚시성 홍보를 못하도록 단속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근원적인 문제는 국가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양질의 직장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들이 안정적인 생활하도록 하는 방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지금 우리나라는 자고 일어나면 정쟁(政爭)만 일삼고, 지나친 방향으로 개혁의 목소리만 높이고 있지, 실제 민생 문제에는 등한히 한 것도 사실이 아닌가? 국가와 정치가 바로 서지 못하면 결과적으로 국민들만 고통과 피해를 당하게 된다.

아무쪼록 한국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서 다시는 우리 국민들이 해외에 나가서 납치를 당하고, 감금을 당하고, 협박을 당하고,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가장 빠르게 조치해야 한다. 또 우리 국민들이나 청년들도 무분별한 사기 산업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하게 조심해야 한다.

교회건물매매



위 치 : 전남 나주시 남고문로102  
교회 앞 6차선도로, 옆 2차선도로 코너위치(상가지역)

- 대 지 : 110평
- 성 전 : 약 40평 사택 : 약 24평
- 식 당 : 약 15평 사무실 : 2평
- 유아실 : 1.5평
- 금 액 : 3억 5천만원  
\*비품일체포함

연락처 010-2972-2630

한 권의 책으로 장병들에게  
군부대에 도서보내기운동 전개 장래의 꿈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군선교위원회  
군선교위원장 박순용 목사 (010-9720-1603)



#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으로 살자”

## 영남동지방회

영남동지방회(회장 김은수 목사)는 지난 9월 29일(월) 울산 남구 대학로에 위치한 순복음늘푸른교회(담임 권점식 목사)에서 9월 월례회를 열고, 말씀과 교제 가운데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다.

이날 월례회는 총무 오경덕 목사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부회장 신홍섭 목사가 대표기도한 후 지방회 사모회원들의 특송으로 은혜를 더했다.

설교는 서기 성기찬 목사가 ‘주인의 마음(딤후 2:20-21, 잠조 고후 4:7)’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오 목사는 “좋은 주인의 뜻을 알아야 하며, 말씀의 열매를 위해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삶이 필요하다”며 “교단과 지방회, 그리고 모든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종성된 일꾼이 되자”고 권면했다.

## 9월 월례회 교단·지역교회 위해 기도



이어 김진희 목사가 헌금기도를 드렸으며, 회장 김은수 목사가 광고를 통해 월례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순서를 맡아 수고한 모든 목사님과 사모님들, 그리고 장소와 식사로 섬긴 순복음늘푸른교회 권점식 목사 부부와 성도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지방회는 가을산행 일정을 공지하며 오는 10월 24일(금) 영천 보현캠프 군위 화본 일대에서 회원들과 교제의 시간을 가질 계획임을 알렸다.

간을 가질 계획임을 알렸다.

이날 예배는 전임지방회장 최용운 목사의 축도로 마무리됐으며, 이후 2부 회의를 서기 성기찬 목사의 회원점명으로 시작되어 회장 김은수 목사의 주제로 진행됐다.

영남동지방회는 지역 교회들의 연합과 교단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목회자 간의 친교와 영적 성장을 도모하는 일에 힘쓰고 있다.

# 충남기총·대세총·서기총, MBC 편파·왜곡 보도

## “기독교 편향 중단하고 즉각 사과하라” 국회에서 공동 기자회견

충남기독교총연합회(충남기총)와 대세총기독교총연합회(대전·세종·충남·충북기총, 이하 대세총), 서주시기독교총연합회(서기총)가 9월 30일(화)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MBC의 편파·왜곡 보도를 강력히 규탄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기독교 편파적, 편향적 보도 MBC를 강력 규탄한다!’라는 제목 아래 진행됐으며,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과 반동성애기독교시민연대(반동연)도 함께 참여해 연대의 뜻을 밝혔다.

세 단체는 지난 9월 24일 MBC ‘뉴스데스크’가 충남기총 대표회장 박귀환 목사를 ‘극우 인사’로 지칭한 보도에 대해 “명백한 사실 왜곡이자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한 중대한 언론 범죄”라고 비판했다.

성명서에서 충남기총은 “박 목사가 당시 총회장 자격으로 독립기법관장을 예



방해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으며, 기념예배 설교 또한 3·1운동과 광복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자리였다”며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한 사실도 전혀 없음에도 MBC가 허위 내용을 덧붙여 ‘극우 활동’으로 매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공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하는 언론의 기본 책무를 저버린 행위이며, 공영방송으로서의 책무를

명각한 중대한 도덕적 일탈”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대세총과 서기총 역시 “기독교와 독립운동은 뿌리 깊은 연관을 갖고 있으며, 한국교회는 나라를 지키고 민족을 살린 헌신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다”며 “지도자를 아무 근거 없이 ‘극우’로 낙인찍는 것은 곧 한국교회 전체를 편향하고 모독하는 일”이라고 규탄했다.

## 발제 - 한국교회와 정교분리

발제자 | 박동호 목사·한국기독교교수교단총연합회 대표회장

### I. 서론:정교분리의 오해와 진실

한국교회는 ‘정교분리’라는 개념에 대해 오랜 시간 혼란을 겪어왔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를 교회가 정치나 사회 문제에 침묵해야 한다는 명령으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본래의 정교분리는, “국가권력이 신앙의 자유와 복음의 증거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세운 신앙적 울타리”입니다.

즉, 교회의 자유를 보장하고, 복음의 공공성을 지키기 위한 신앙적 방어선이자 하나님의 주권과 세속 권력의 질서를 바로 세우는 원리입니다. 오늘날 이 주제가 다시 논의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한국사회는 교회의 정치화, 혹은 교회의 침묵이라는 양극단의 오류 속에 있습니다. 복음의 사회적 책임을 회복하기 위해, 우리는 성경적·신학적·역사적·헌법적 차원에서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를 다시 성찰해야 합니다.

### II. 성경적 근거:신구약에 나타난 공공적 책임

**1. 구약성경: 하나님 통치와 사회정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공동체였습니다. 모세·여호수아·사사·다윗 등은 종교지도자이면서 동시에 정치지도자였습니다. 율법은 단순한 종교 규범이 아니라, 공동체의 헌법이었습니다. 사회법, 형법, 분배, 토지, 노동, 약자 보호까지 포괄하며 “하나님의 통치 질서가 사회의 구조 속에 실현되도록” 명시했습니다(신명기 10:18, 레위기 19:15).

예언자들은 권력의 부패와 불의, 약자 억압을 공적으로 꾸짖었습니다.



박동호 목사

아모스와 미가는 왕과 귀족을 향해 “정의의 물갈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암 5:24)고 외쳤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약의 정교분리 정신입니다. 정치와 신앙을 분리하되, 모든 영역이 하나님께 속함을 인정하는 원리입니다.

**2. 신약성경: 복음과 권세의 질서**  
예수께서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마 22:21)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정치와 신앙을 분리시키라는 선언이 아니라, “각 영역의 책임은 구분되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한다”는 원리입니다. 사도행전 5:29에서 사도들은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는 국가권력이 신앙을 억압할 때 교회는 순응이 아니라 저항할 권리와 의무가 있음을 밝힌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제국의 권력 우상을 ‘짐승의 권세’로 묘사하며 권력속배와 우상화를 동시에 경고했습니다.

즉, 신구약 전체가 정치·사회질서를 하나님의 공의 아래 두는 신앙적 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요약 정리**  
구분: 구약 신약 핵심주제 하나님 통치

와 공동체 정의 복음의 공공성과 신앙의 자유. 대표사례 모세·다윗·예언자들의 사회비판 예수·바울·요한의 권세관 결론 신앙은 사회법과 윤리를 포괄할 신앙은 권력을 초월하되 공공선에 참여.

**결론** : 신구약 전체는 ‘정치침묵’을 명령하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사회정의·윤리·공동선의 기준까지 확장되도록 요구한다.

### III. 역사적 고찰 - 정교분리의 빛과 그림자

**1. 중세의 실패: 정교일치의 부패**  
로마교회는 국가권력과 결합하여 “정교일치”를 이뤘지만, 그 결과는 신앙의 세속화와 교회의 타락이었습니다. 교회는 정치권력을 신성시했고, 복음은 권력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 권력결탁 = 교회 부패라는 교훈을 남겼습니다.

**2. 근대의 오용: 세속주의의 확산**  
프랑스혁명 이후, ‘정교분리(laïcité)’는 국가가 종교를 통제하거나 신앙을 ‘사적 영역’으로 가두는 명분이 되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윤리와 복음의 공공성은 급격히 약화되었습니다.  
→ 과도한 분리 = 복음의 침묵이라는 역효과를 낳았습니다.

### 3. 한국교회의 경향

- 일제강점기: 신사참배는 “정치에 굴복한 신앙의 타락”이었습니다.
- 1980년대 민주화운동: 교회는 불의한 체제에 맞서며 예언자적 사회참여를 회복했습니다.
- 오늘날: 일부 교회의 정치화는 신앙의 신뢰를 훼손하고 있으며, 반대로 과도한 침묵은 세상 속 복음의 영향력을 상실시켰습니다.

### 역사적 교훈

권력에 순응한 교회는 쇠퇴했고, 진리를 외친 교회는 역사가 이끌었다.

### IV. 신학적 관점 - 교회의 정치참여는 어디까지인가?

#### 1. 참여(Engage)와 개입(Interfere)의 구분

교회의 예언자적 참여는 신학적으로 정당하며, 정당·선거·권력에 대한 직접 개입은 복음의 본질을 왜곡합니다. 예언자적 참여정치적 개입성격불의 비판·공공선 제시권력 추구·정당 지지결국복음의 공공성 확장신앙의 세속화 평가사명적 책임 본질적 타락 예언자적 참여는 비판과 대안의 영성을 포함합니다. 즉, 교회는 사회의 병든 곳을 드러내되, 동

시에 치유의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 2. 복음의 공공성과 하나님 주권

성경은 신앙을 사적인 신념으로 제한하지 않습니다. 공동체 정의, 생명 존중, 법과 윤리, 약자 보호 등은 모두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정치와 신앙은 기능적으로 구분되지만, 주권의 원천은 동일하게 하나님께 있습니다. 칼뱅은 “정치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포함된 거룩한 사역”이라 했습니다. 즉, 교회는 정치를 배척할 수도, 지배할 수도 없으며 오직 복음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 3. 교회의 도덕적 사명

교회의 사명은 세 가지입니다. ① 도덕적 나침반 - 불의와 부패를 꾸짖음 ② 예언자적 비판자 - 진리의 관점으로 권력을 견제 ③ 화해의 중재자 - 분열된 사회에 사랑과 정의를 회복 정치화된 교회는 타락이지만, 양심을 잃은 교회는 배교입니다.

#### V. 헌법적·현실적 적용 : 신앙의 자유와 공공의 책임

##### 1. 헌법 제20조의 의미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이 조항은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집니다.

① 국가권력이 교회의 신앙과 예배를 통제할 수 없다는 원칙 ② 교회가 정당정치나 선거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없다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헌법은 교회의 사회적 발언과 공익적 목소리를 금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종교의 자유 안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교회는 “정당·선거에는 개입하지 말되, 사회정의·생명·윤리 문제에는 반드시 발언하라.”는 균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 2. 오늘 한국교회의 공적 책임

교회는 정당·정치권의 하수인이 되어서는 안 되며, 사회적 도덕성과 공공정의를 세우는 ‘양심의 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것은 권력의 영향력이 아니라, 복음의 도덕적 신뢰입니다. 사회가 혼란할수록 교회는 “예언자적 목소리”로 진리·공의·사랑을 선포해야 합니다.

##### VI. 결론 : 정교분리의 참된 의미

정교분리는 교회의 침묵 명령이 아니라, 복음의 자유를 지키는 신앙의 방파제입니다. 교회는 국가를 섬기되 하나님보다 위에 두지 않으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된 채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관입니다.

“복음 없는 사회참여는 공허하고, 성경 중심 없는 교회 일치는 위험하다.” 정교분리를 바로 세우는 길은 정치로부터의 분리와 공공선에 대한 참여의 균형입니다. 이것이 오늘의 한국교회가 회복해야 할 공적 신앙의 길입니다.

홈페이지 : [www.ucts.org](http://www.ucts.org)

**202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신학연구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예향성 사이버신학연구원은 사명은 있으나 지역적, 시간적 여건 등으로 출석 수업을 할 수 없는 분들을 위한 신학과정입니다. 소명 의식을 가진 분이라면 누구나 언제든 입학할 수 있으며 본인 스스로 온라인(인터넷)으로 교과목을 수강하여 이수학점을 취득함으로써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1. 지원자격**

학 과	수업연한	지원자격
신학과 (신입생)	3년 6학기 (140학점)	1. 만18세 이상인 성인 남녀 2. 소명의식이 있는 자 3. 신앙경력 5년 이상인 자
신학과 (편입생)	2년 4학기	1.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2. 본 교단이 인정하는 타 신학교에서 편입하는 자는 이수한 학점에 따라 학년 결정

**2. 제출서류(각 1통)**

① 입학원서(소정양식)  
\*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또는 전화 요청시 우편발송

② 최종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 증명서

③ 타 신학교 수료증 및 성적증명서-편입생

④ 주민등록등본(3개월 이내 발급)

⑤ 신앙고백서(A4용지 2매 이내)

⑥ 반명함판 사진 2매(3개월 이내 촬영)

● **원서교부 및 접수 : 수시**

● **입학상담 및 문의 : 교무처 02)2678-5181**

<http://gd.ucts.org>

**2026학년도**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사이버목회대학원**

**신·편입생 모집**

● **설립취지**

본 대학원은 사단법인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교단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훈련기관으로써 교단 소속 사역자나 목사안수를 받기 위해서는 필히 본 대학원을 졸업하여야 한다.

● **교육목적**

본 대학원은 정통 복음주의 기독교 신앙을 토대로, 제반 신학이론과 오순절 신학을 연구, 교수함으로써 장차 한국과 세계의 교회를 이끌어 갈 올바른 신학적 이해와 인성과 지성을 갖춘 영적인 지도자 양성을 목표로 한다.

● **원훈**

- 말씀충만, 성령충만.
- 목양일념.
- 세상 만민에게 복음전파.

**문의처 및 주소**

- 문의처 : 02)2678-5181 FAX: 031)944-5181
- 주 소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22나길 8 (양평동5가 90-3) 사이버목회대학원 교학처 (우)07205
- <http://gd.ucts.org>, e-mail : [ucts5181@naver.com](mailto:ucts5181@naver.com)



# 2025년도 전국여교역자국 추계수련회 열려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의 일꾼” (삼하 12:23, 대하 7:14) 주제로

평창 대림벤엘교회 수양관서 2박 3일간 진행

개회예배설교



엄하석 목사  
주성교회 담임



국장 조영란 목사  
일산벤엘교회담임



교단과 지방회, 여교역자국 회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고문 정부용 목사



전국여교역자국(국장 조영란 목사)은 “시대를 분별하는 기도의 일꾼”(삼하 12:23, 대하 7:14)이란 주제로 2025년도 추계수련회를 지난 10월 13일(월)부터 15일(수)까지 2박 3일간 평창 대림벤엘교회 수양관(원로목사 정부용 목사, 담임 조선남 목사) 및 평창 일대에서 개최했다.

이번 수련회는 전국 여교역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국교회 안에 침투해오는 이단과 사이버의 위협을 경계하고, 종교다원주의와 차별금지법으로 포장된 동성애 확산의 흐름을 분별하며 바른 복음전파와 사명을 새롭게 다지는 뜻깊은 시간으로 진행됐다.

참석한 여교역자들은 국가 안보와 교회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한 기도의 사명자로 서겠다는 결단과 함께, 사랑과 인내, 열정과 희생으로 복음의 최전선에서 헌신할 것을 다짐했다. 또한 말씀과 성령의 권능 속에 한국교회의 현실을 바로 인식하고, 교회 지도자로서 시대적 사명감을 새롭게 하는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졌다.

개회예배로 시작된 은혜의 일정

첫날인 13일(월) 오후 4시, 개회예배를 시작으로 사흘간의 일정이 본격적으로 진행됐다. 예배는 교단 여교역자국 예배부장 조병희 목사의 사회로, 이인호 목사(부총회장)의 대표기도, 사회자의 성경봉독에 이어 엄하석 목사(교단 총회장, 주성교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고전 2:9)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다.

엄하석 목사는 설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하였다”는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했다.

엄 목사는 “세상은 눈에 보이는 가치와 성공을 좇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사람의 지혜로는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강조했다. 이어 “참된 사역자

는 환경이나 조건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분이 예비하신 길을 보게 된다”고 말했다.

엄 목사는 마지막으로 “이번 수련회를 통해 여교역자 모두가 다시금 하나님 사랑의 감격을 회복하고, 그 사랑으로 한국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서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말씀을 맺었다.

이어 최정희 목사의 헌금기도, 김은숙 목사의 헌금송, 그리고 조영란 목사(여교역자국장)의 인사말과 총회장 엄하석 목사의 축도로 개회예배를 마쳤다.

저녁식사 후 열린 부흥회는 흥보부장 안선자 목사의 사회로 표현자 목사의 기도, 자문 한순남 목사의 설교로 이어지며 은혜와 성령충만한 시간이 되었다.

둘째 날, 말씀과 교제, 그리고 평창 600마지기에서의 힐링

14일(화) 새벽에는 이복순 목사의 설교로 새벽예배가 드려졌으며, 이후 찬양

과 기도,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했다.

이어 참가자들은 평창 600마지기 탐방에 나서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를 묵상하며 교제의 시간을 가졌다. ‘600마지기’는 평창 진부면에 위치한 고원 목장지대로, 약 600마지기의 넓은 초지와 끝없이 펼쳐진 산세가 어우러져 사계절마다 장관을 이루는 곳이다. 이번 탐방에서 회원들은 탁 트인 풍경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열고, 서로의 사역과 삶을 나누는 영적 침과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자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새롭게 느낄 수 있었다”며 “메마른 마음에 단비 같은 은혜가 임했다”고 고백했다. 오후에는 영화 상영과 영적 나눔의 시간이 이어졌으며, 저녁 부흥회에서는 이복순 목사의 사회로 김희자 목사의 기도, 여교역자국장 조영란 목사가 말씀을 전하며 다시 한 번 기도와 회개의 불길을 일으켰다.



저녁집회

셋째 날, 폐회예배로 수련회 마무리  
마지막 날인 15일(수) 폐회예배에서는 최정희 목사의 사회, 탁정신 목사의 설교, 김중애 목사의 기도, 배길선 목사의 헌금기도 순으로 진행됐다.

모든 순서를 마친 뒤 참가자들은 교제 시간을 갖고, 점심식사 후 귀가하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와 결단을 묵회현장에서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이번 추계수련회를 통해 여교역자들은 한국교회의 정체성을 수호하고, 기도와 헌신으로 다음 세대에 복음의 불씨를 전하는 사명을 새롭게 했다. 여교역자국장 조영란 목사는 “시대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여교역자들이 되어, 시대의 위기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민족과 교회를 살리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당부했다.



은혜로운 말씀 증거



간절한 기도





# 기아대책,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출판기념회

## 한국교회의 현실 진단과 미래 목회의 방향 제시

국내 최초의 국제구호개발 NGO 희망친구 기아대책(회장 최창남)은 목회 데이터연구소와 함께 지난 9월 29일(월)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6’ 출판기념회를 개최했다.

‘한국교회 트렌드’ 시리즈는 2022년부터 양 기관이 공동으로 매년 발간해 온 한국교회 대표 트렌드 리포트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주요 과제와 미래 목회의 방향을 심층적으로 탐색한다. 이번 보고서는 “한국교회와 함께, 한국교회를 통해, 한국교회와 미래세대를 위해 하나님 나라를 세운다”는 사역 비전 아래 집필되었으며, 기아대책 목회자미래비전네트워크 소속 목회자들이 원고 감수에 참여해 현장의 목소리를 대했다.

이번 ‘한국교회 트렌드 2026’에서는 △심플처치 △AI 목회 코퍼라잇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 △서로 돌봄 공동체 △이주민 선교 등 한국교회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사회의 변화 속에서 선교적 교회로 나아가기 위한 구체적 방향을



제시했다.

출판기념회에서는 지용근 목회데이터연구소 대표가 직접 핵심 주제를 발표하며 참석자들과 주요 내용을 공유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창남 회장, 류승빈 목회자미래비전네트워크 운영위원, 지용근 대표, 여진구 규장 대표 등이 함께 자리해 한국교회의 건강함 미래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최창남 회장은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은 한국교회의 현주소와 미래를 파악할 수 있는 귀한 보고서”라며 “희망친구 기아대책이 ‘나름보다 구별된 다름’의 사역 방향을 따라 한국교회의 건강한 성장과 선교적 사역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는 ‘2026 한국교회를 말한다’를 주제로 전국 20여 곳에서 목회자·제직자 세미나가 이어질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책의 핵심 내용을 현장 교회와 나누고, 한국교회가 선교적 교회로 사역할 수 있도록 돕는 실행 전략을 제시하는 자리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대화조차 범죄로 취급되는 세상

## 스코틀랜드 여성, 낙태시설 인근 평화 시위 중 체포

스코틀랜드 글래스고에서 한 70대 여성이 낙태시설소 인근에서 ‘대화를 제안하는’ 팻말을 들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다시 체포됐다.

평화적인 표현 행위가 공권력의 제재 대상이 된 이번 사건은 유럽 내 표현의 자유와 생명 존중의 가치에 대한 논란을 다시금 불러일으키고 있다.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에 따르면, 친생명운동가 로즈 도허티(75) 여사는 글래스고 퀸 엘리자베스 대학병원 인근 ‘완충구역(buffer zone)’에서 “(낙태) 강압은 범죄이며, 언제든 원할 때 이곳에서 대화할 수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팻말을 들고 서 있다가 ‘완충구역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포됐다.

이 법은 낙태시설 200m 이내에서 괴롭힘, 협박, 영향력 행사 등을 금지하는 조항으로, 단순히 “대화를 제안하는 행위”도 문제될 수 있다.

도허티 여사는 지난 8월에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이유로 체포된 바 있다. 당시 사건이 알려지자 미국 국무부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며 비판 성명을 냈고, 이후 그녀는 석방되었다.

도허티 여사는 “저는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대화를 나누고 싶은 사람을 기다렸을 뿐, 누구에게도 다가가지 않았다”며 “서로의 이야기를 나눌 자유마저 금지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 살롱나비 / 유엔 총회시 이재명의 트럼프 초청 만찬 불참에 대하여

## “유엔 총회 140개국 대표들 초청 트럼프 만찬 불참은 외교무대에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외교 결례다”

지난 9월 23-24일 유엔총회에서 있었던 몇 가지 외교 결례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깝고 앞으로 국가 위상과 국익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의장국으로서 순차 통역 무시하고 본회의 입장은 국격에 걸맞지 않으며, 더욱이 145명이 초청된 트럼프 만찬에 이재명 대통령이 불참한 것은 외교 결례이며, 다시 정상 외교의 중요한 모멘텀을 놓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사태로 한미 간 관세 후속 협상은 교착상태로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관세 15% 합의 등을 끌어내 “협상이 성공적”이라 자평했고, 이어진 양국 정상회담도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했다. 하지만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가 대부분 대출·보증이라던 우리측 설명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가 ‘현금 투자’를 요구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 미 월스트리트 저널(WSJ)은 “한미협상이 엉망이 되고 있다”고 충격적으로 보도하고 있다. 다가오는 APEC에 미국의 트럼프가 일본은 2박3일로 방문하면서 의장국인 한국은 당일치기 방문으로 이재명을 폐식하는 방문일정을 보내와 한국 정부는 1박 2일로 조율하느라고 곤혹을 치루고 있다. 20년만의 APEC 외교 기회에 한국의 신뢰와 친분을 쌓고 싶었던 것이 되고 있으며, 이재명의 실용외교가 중대한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맞물려 환율이 1,400원 대로 상승하고 있다. 유엔 총회 참석 및 트럼프 초청 만찬 기회를 살리지 못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럴 때 필수로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를 직접 만나 개인적 신뢰와 친분을 쌓고 설득하여 이해를 구하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살롱나비는 정상 외교는 대통령 개인의 호(好) 불호(不好)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경제가 달린 문제이므로 매우 신중하게 행동해주기를 바라면서 다음같이 표명한다.

1.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140개국 정상들 초청만찬 불참은 외교 무대에서 스스로 외톨이가 되는 외교 결례다.

트럼프 제2기 정부가 출범한 후 첫 유엔 총회에 트럼프와 이재명이 함께 기조 발표하는 자리에 트럼프가 미 대통령으로서 23일 밤 유엔 참여 145개국 정상들

을 초청한 만찬 자리에 불참한 것은 외교적 결례이며, 교착 상태에 빠져 있는 한미통상협정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이 되지 아니할까 우려하는 바이다.

트럼프 대통령 만찬 행사는 스페인 국왕과 일본·호주 총리를 비롯해 145명의 각국 고위급 인사들이 참석해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백악관 관계자는 “145명의 고위 인사들과 배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부부와 사진을 찍기 위해 줄을 섰고 일부는 몇 시간을 기다렸다”고 했다. 오늘날 21세기 정상외교 시대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와 정상외교를 회피하는 것은 국격에 걸맞지 않고 국익에 부합하지 않다는 사실에 접하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리고 이 만찬에는 트럼프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영국, 호주, 프랑스, 스페인, 일본 등 세계의 주요 나라 정상들이 만나는 자리인데 이들과 만나서 대면 인사하고 친분을 쌓아가는 것은 국제적으로 일고 있는 K-컬처의 정성으로서 대한민국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내 경기도 지사와 야당 당수로부터 봉직하여 국제적 경험이 부족한 탓도 있겠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한국은 다시 극동의 미지의 분단 국가가 아니라,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방위산업면에서도 세계를 선도하는 선진국가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걸맞는 국제적으로 친숙한 지도자상을 보여주어야 한다.

2. 외교라는 것은 경제 논리 이전에 지도자간의 인격적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

미국 트럼프는 한국의 제안에는 꺼리더니 아르헨티나 대통령 하비에르 밀레이와 회담 후에 200억 달러 통화스와프 협상을 허용했다. 통화 스와프란 두 나라가 서로의 통화를 일정 기간 미리 정한 환율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한 계약이다. 금융전문가에 의하면 “통화 스와프가 체결되면 문제가 상당 부분 해결되는 것처럼 여겨진 안 된다.” “통화 스와프는 만능이 아니다. 외환 위기 때비 ‘단기 안전판’일 뿐”이다. 달러 빌리는 기간은 길어야 1년이며, 미국은 장기 투자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통화 스와프는 국제적 신용 유지에 도움이 된다.

아르헨티나는 “남미의 병자라 불리지는 아르헨티나에 통화스와프를 먼저 제

안했다는 것은 미국이 이재명 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한국의 요구에 응했으며, 통상협정도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난 8월 워싱턴 정상회담이 이번 9월 유엔 총회에서 더욱더 신뢰관계로 발전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유감이다. 이는 트럼프에게만 마가(MAGA) 일방주의라고 탓할 것이 아니라 한국의 대통령이 인격과 양식에 있어서 미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면에서 야당 시절 반미 내지 친중 표명을 해온 이재명이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간과 더불어 이를 만회하고, 신뢰를 쌓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번에 방미 직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외국 군대가 없으면 자주국방이 안된다는 것은 굴종적 사고”라는 글은 내용은 맞는 말이나 상황에 있어서 2만4,159명(2025년 10월 기준)을 주둔시키는 미국과의 중대한 관세협상에 직면하고 있는 국가 지도자가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까?

3. 트럼프의 스타일로는 톱다운 결정 구조이기 때문에 오파니언 리더들에게 호소하는 것은 스스로 패싱당하는 것이며, 비효율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초청 만찬에 가는 대신에 미(美) 오파니언 리더들과 만나 한국의 애로를 설명했다고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만일 미 측 요구를 수용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거나 “외환 위기가 올 수 있다”고 했다. 차관세 협상은 일본과 유럽이 수용함으로써 타결(일본 25%→15%, 유럽 27.5%→15%)되었다. 한국은 25% 차관세를 물게 되었다. 일본과 유럽 정상들은 이미 몇차례 트럼프와 만났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했다. 이재명도 이번 기회에 트럼프와 직접 만나서 설득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그리하여 상황은 더욱 긴박하게 되었다.

이 대통령의 유엔 총회 참석 직후 트럼프는 한국에 대하여 “3,500억 달러는 선물(up front)”이며, 로트닉 미 상무장관은 대미 투자금액이 소폭 증액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보도했다. 지난달 8월 정상회담 시에 보여준 이재명의 트럼프 마음을 돌리는 외교술은 어디갔는가? 외교술은 어디까지나 하나의 수사(修辭) 이상으로 마음이

서로간에 통하도록 하는 것이다. 불참은 스스로 패싱당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 대통령은 지난 80년간 한미외교사를 다시한번 연구해서 국익의 외교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깊이 숙고해보기 바란다.

4. 김혜경 여사까지 멜라니아 여사 곁에 마련된 자리를 비운 것은 외교 결례다.

유엔 총회시에 김혜경 여사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배우자인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의 바로 옆자리에 좌석이 배정됐는데, 대통령실에서 인지(認知)도 못하고 영부인 일정 따로 잡아 이날 불참하면서 백악관 안주인인 멜라니아 여사와 지근거리에서 안면을 틀 수 있는 기회를 날려버렸다는 한탄이 외교가에서 나온다. 정상 외교에 있어서 영부인(令夫人)의 외교도 중요하다. 그래도 이날 유엔 총회에 불참한 김혜경 여사는 같은 날 오후, 롯데 뉴욕펠리시호텔에서 멜라니아 여사가 유엔 총회 참석자 정상 배우자를 대상으로 주최한 리셉션에 참석한 것은 바람직하다. 다만 이날 리셉션은 유엔 총회에 참석한 각국 정상 배우자들이 모두 모인 자리라서 유엔 총회 때 멜라니아 여사의 바로 옆자리에 앉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경청하면서 대화를 나누는 것보다 효과가 떨어지긴 했으나 오전의 외교 결례를 조금이라도 만회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5. 유엔 총회 연설에서 박근혜나 윤석열 대통령보다는 이재명 연설의 내용, 질, 반응은 저조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대통령이 유엔 총회 시 입장문을 읽자마자 순차 통역을 무시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간 것은 의전면에서 국격을 떨어뜨리는 행보였다. 이 대통령은 총회 기조연설에서 한국이 내란의 소용돌이를 거쳐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하였다고 발표했으나 영상에서는 참석자들 2/3가 빠져 나간 설명회 회장(會場) 장면이 방영되었다. 이 대통령의 대북(對北) 구상인 ‘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것은 “북핵 포기 불가,李 비핵화 구상과 모순되며” “북한 비핵화라는 한미일 핵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 아닌가”(전문가를 견해)라는 반응을 일으켰다. 이 대통령이 북핵을 ‘체제 유지’용이라고 말하고, 남한이 북한을

위협하고 있는 것처럼 발언한 장소도 적절치 못했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내용도 북핵에 대해 제재(制裁)를 가하는 유엔 정책에 맞지 않는 전략적 메시지 관리의 미숙함을 드러낸 발언이었다.

연설 효과는 박근혜나 윤석열 대통령 연설보다 내용과 질, 반응에 있어서 국가의 위상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아쉬웠다. 다른 나라 정상들은 이미 언론보도를 통해서 그동안 야당 시절 국정(政府)의 발목잡기와 각료 및 검사들 출탄핵 등 국내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들었고, 전직 대통령을 내란 수괴로 구속하고 재판 받게하는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가졌을 것이다. 그의 연설 시에 많은 수가 빠져 나갔다는 것은 야당 시절 보여준 사법 리스크, 국제적 인기 저조(低調)를 반영한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성찰해야 한다. 우리는 여야 어떤 지도자든 한국의 대통령이 국제사회에서 존경받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6.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는 글로벌 선진국가의 지위에 선 국가의 지도자로서 품위있게 행동해달라.

한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국제적인 외교술과 경험을 가진 대통령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다. 그는 일평생 일본 강점기 시절 독립운동을 이루기 위해서 해외에서 독립운동을 했고, 6.25 남침시에는 미국의 지인들,프린스턴대 지도교수 해리 트루만(Harry S. Truman, 1884-1972) 대통령, 맥아더(Douglas MacArthur, 1880-1964) 장군 등을 통해서 미군의 즉시 개입을 통해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켰고, 능숙한 영어와 외교술로 동방의 미지의 가난한 나라 한국이 최대 강대국 미국과 동맹을 체결하여 나라를 부강하게 이끌었다.

당시의 미국은 정말 마음씨 좋은 먼거리(대평양 건너) 아저씨였으나 오늘날 미국은 조현 외교부 장관 말처럼 예전 미국이 아니다. 미국 중산층의 제조업을 한국, 일본, 중국이 빼앗아 갔기 때문에 일자리 빼앗긴 미국인들로부터 예전처럼 좋은 아저씨 역할을 기대할 수는 없다. 세계 최빈국에서 미국 덕분에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에 되돌려준다는 넓은 마음으로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 해야 한다. 일본, 유럽연합 같은 방식을 참고해야 한다. 국익을 합리적으로 지켜야 하되 남미 친중 이미지

로 트럼프를 자극하여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파탄에 가도록해서는 안된다. 여기에 이승만처럼 중국 공산당 일당 독재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을 지키려는 동맹 지도자의 확고한 자세가 트럼프에게 각인되도록 하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요구된다.

7. 미국은 안보와 경제가 함께 가는 나라로서 지혜로운 협상으로 한미동맹을 더 잘 가꾸어 주기 바란다.

우리가 3,500억달러라는 현금을 구할 방법이 없다.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한국은 그에 따라 현금을 내기만 하라는 것도 수용하기 어렵다. 일본도 같은 조건이지만, 일본은 1조3000억 달러의 막대한 외환보유액과 기축통화국 지위, 미국과 통화 스와프까지 가진 나라다. 우리와는 비교 불가다. 미국 측의 완고한 자세로 협상이 난항을 겪자 우리 측 반미 세력의 강성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는 이재명 정권의 불안정으로 이어지고 국민들의 삶의 어려움으로 직결된다. 이재명은 미국이 왜 브라질에 보여준 통화 스와프를 동맹관계에 있는 한국에는 꺼려하는지 생각해야 한다. 대통령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국제관계에 중요한 것이다.

이제 대한민국의 지도자는 일본과 유럽연합처럼 제조업의 어려움으로 중산층(러스트 벨트)의 삶이 피폐해진 미국을 은혜입은 먼 이웃으로 보면서 미국과 대한민국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지혜롭게 제시해야 한다. 80년 역사를 지닌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한국은 멀리 보아야 한다. 한미 지도자들은 단지 임기가 있는 지도자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예측불가의 일방주의 지도자 트럼프의 미국은 지도자의 임기가 있는 민주주의 나라이며, 앞으로 국제적인 책임과 연대를 회복할 미국의 젊은 지도자들이 들어설 여지도 많다. 아직도 북핵의 위험, 우크라이나 침공 전쟁에서 북한 파병 지원을 받고 있는 러시아, 첨단기술로 무장한 중국 공산당의 안보 위협이 있는 신냉전 시대에 한국 지도자는 일본, 서방 자유진영, 특히 동맹관계 속에 있는 미국과 함께 북핵에 대한 안보 확실성과 새로운 무역질서를 세우는데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2025년 10월 13일  
살롱을 꾸꾸는 나비행동



# 월드비전, ‘2025 여의도 플로깅 데이’

불꽃놀이 뒤 쓰레기 치우며 환경 보호

국제구호개발 NGO 월드비전(회장 조명환)은 지난 9월 28일 서울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2025 여의도 플로깅 데이’를 개최했다.

참가자들은 여의도 불꽃 축제 다음 날 쌓인 쓰레기로 오염된 한강공원을 함께 청소하며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플로깅’은 조깅을 하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참가자들은 여의나루역 2번 출구에 모인 후 네 팀으로 나누어져 각자 마포대교와 원효대교 방면에서 한시간정도 쓰레기를 주웠다.

이날 수거한 쓰레기는 100리터 쓰레기봉투 10개 분량에 달해, 적지 않은 양이었다. 행사가 끝난 뒤에는 여의도 일대 식당들의 협찬 간식과 함께 피크닉을 즐기며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여의도 테이스티’ 인스타그램 계정을 운영하는 황인호 로컬 큐레이터와 구독자, 동근관계를 지향하는 커뮤니티 ‘라운더스’, 그리고 월드비전 후원자 커뮤니티 ‘오렌지농장’이 공동 주최했다.

특히 월드비전 ‘오렌지농장’은 “착한 일을 재미있게”, “나의 풍성함이 아이들의 풍성함이 되는 모임”

이라는 슬로건 아래 동참했다.

‘여의도 플로깅 데이’는 황인호 로컬 큐레이터가 2023년부터 여의도 불꽃 축제 다음 날마다 꾸준히 진행해온 행사다. 작년에는 커뮤니티 ‘라운더스’가 함께 참여하며 규모가 커졌고, 올해는 월드비전 후원자 모임 ‘오렌지농장’이 함께해 약 70명 규모로 확대됐다.

황인호 로컬 큐레이터는 “불꽃놀이의 낭만 뒤에 남겨진 쓰레기 문제를 직접 체험한 후, 매년 이 시기에 플로깅을 이어오고 있다”며 “단순한 환경 정화 활동을 넘어 사회적 가치를 나누는 공동체적 행사로 자리잡은 것 같아 뜻깊다”고 말했다. 이어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환경 보호 활동이 더욱 많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명환 월드비전 회장은 “화려한 축제 뒤에 남겨진 쓰레기를 함께 치우는 플로깅은 단순한 환경 정화가 아니라 나눔의 또 다른 모습”이라며, “모든 참가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러한 움직임이 확산되어 일상 속 나눔 문화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1,600년 된 사마리아 유적지 발견

이스라엘관광청 발표, 이스라엘 중부에서

이스라엘관광청은 최근 이스라엘 중부에서 웅장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1,600년 된 사마리아 농경지 유적이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번 발굴은 로마 시대 말부터 비잔틴 시대 말(서기 4~7세기)까지 약 400년간의 사마리아 정착지 유적으로, 사마리아 공동체의 변형과 쇠퇴 사이의 역사적 변천사를 보여주는 중요한 발견이다.

이번 발굴은 이스라엘 유물관리청의 의뢰로 이스라엘 건설주택부(Israel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Housing)의 재정적 지원을 받아 새로운 북부 지역 조성을 위해 진행되었다.

발굴이 진행된 장소는 고고학 유적지 카프르 하타(Kh. Kafr Hata) 경계 부근으로, 역사적 자료에 따르면 이 곳은 사마리아 마술사이자 영지주의 종파

의 아버지, 기독교 초기 개종자 중 한 명으로 여겨지는 시몬 마구스의 후계자인 메난드로스의 출생지로 알려져 있다. 발굴 결과, 카프르 카심(Kafr Qasim)에서 약 1,600년 된 웅장하고 광활한 농경지와 비문이 새겨진 화려한 모자이크로 장식된 궁전 건물들, 그리고 의례를 위한 목욕시설인 미크베와 올리브유 압착기 등이 발견됐다.

이스라엘 유물관리청의 발굴 책임자인 알라 나고르스키(Alla Nagorsky)와 다니엘 레이히 그리즈월드 박사(Dr. Daniel Leahy Griswold)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건물의 거대한 규모와 화려함, 모자이크 바닥의 품질, 인상적인 농업 시설들은 이 지역에서 오랜 세월 사마리아 공동체가 누렸던 엄청난 부와 변형을 나타낸다.

### 가족세트전도

박영수 목사 // 평내순복음교회, 가족세트전도아카데미 원장

## 사명의 그릇과 명암

여기 서울역 광야길 광장에 자기로 살아온 그릇이 담겨 있고 저 숲속엔 희미하고 아련히 스쳐간 희색빛 자신의 명암이 누워있다. 아 은빛 나그네여, 한 발짝 한발자국 석양 길 따라 높은 하늘 거침없는 세풍(細風)되어 황혼을 머리에 이었다.

그리고 노을의 강여귀 한 때의 이름 모를 철새들의 긴 호흡이 이어진다. 아 세월이여 그대의 몸으로 다투지 말라. 오늘 나는 깊은 사명의 고랑에 파여 황혼의 쟁기 들고 나를 치기에도 지칠 줄 모른다.

지난해의 새 결음이어 이제 남은 해도 이름 모를 철새의 길을 가려는가.

욕심 없이 순결을 벗 삼아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 하리라. 지금 이대로의 모습으로 삶의 굽이굽이 맛 보리라. 구비 구비 삶의 젖은 곳내가선 이곳이어 님 두리가 아닌 좋은 보석이라. 예수 따라가는 길 참 보석이라.

이번 추석에는 서울역광장 노숙인 대상으로 가족세트 대표총재 박영수 목사는 대성회를 열었다. 27년 전 한세대 신학대학원수업 마치고 서울역 광

장에서 밤 10시경에 빵과 요거트를 나눠주며 전도하는데 개중에는 빵과 요거트를 얼굴에 집어던지는 분도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나’라는 것이다.

더 감개무량한 것은 그때 전도했던 한분이 개심해서 지금 목사가 되고 어여쁜 전도사님과 결혼하여 지금 부사역자로 사명을 잘 담당하고 있다는 것.

박영수 목사 설교중 그분을 드러내게 했는데 색소폰 연주를 통하여 모두 웃었고 은혜의 물결이 었다.

복음을 받아들이면 어떤 분은 복음을 전하는 목사가 되었고 또 어떤 분은 2-3십년이 지나도 여전히 노숙자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다. 성경에 마지 못하면, 원변 강도와 같지 않은가?

가족세트를 통하여 드린 예배는 서울역광장에 모인 모든 이들이 은혜의 시간 도전의 시간이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 드린다.

가족세트전도 총괄 사무총장 이수 교수  
평내순복음교회 경기도 남양주시 평내동 121-10  
031)592-1691, 010)3730-2573



# 기증인 유가족과 생존 시 신장기증인 가정에 추석 선물

“보름달처럼 세상 밝힌 사람들, 장기기증인과 유가족에게 전하는 희망”

재)사랑의장기기증운동본부(이사장 유재수, 이하 본부)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생존 시 신장 기증인(이하 리빙도너)과 각막 및 시신 기증인 유가족,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이하 도너패밀리)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담은 추석 선물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올 추석에는 어르신들과 송편을 먹으며 많은 분의 사랑이 담긴 따뜻한 차를 나눌 수 있겠네요.”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한 양로원에서 무의탁 노인들을 모시고 있는 김근묵 씨(남, 75세)는 차와 다과 등이 담긴 추석 선물을 받으며 20여 년 전 실천한 장기기증 덕분에 따뜻한 추석을 보낼 수 있게 됐다고 웃었다.

1995년 1월, 김 씨는 얼굴도 모르는 환자를 위해 신장 하나를 기증했다. 수술 후 3일 밤낮을 통째로 시달렸지만 그는 신장기증을 후회하지 않았고, 2003년 또 한번 장기기증을 실천했다.

이번에는 일면식도 없는 환자를 위해 간의 일부를 기증한 것이다. 김 씨의 나눔은 가족도 변화시켰다. 그의 아내 이경희 씨 역시 1996년 12월,



17세의 만성신부전 환자를 위해 자신의 신장을 나눴다. 현혈에도 160여 번이나 참여하며 나눌 수 있는 모든 것을 나누고자 했던 김 씨는 “장기기증은 내 인생에 있어 가장 잘한 일이다.”라고 고백했다.

추석이 다가오면 25년 전 먼저 떠난 아들,故 강석민 군(기증 당시 17세)이 더 사무치게 그리다는 도너패밀리 강호 회장(남, 70세)은 추석 선물을 받고 끝내 눈시울을 붉혔다.

선물에 담긴 ‘강석민’ 세 글자가 새겨진 명찰을

쓰다듬던 그는 “시간이 흐르면서 장기를 기증하고 떠난 아들의 이름이 우리 가족 안에서만 기억될 줄 알았다.”라며, “그러나 이렇게 많은 분이 아들의 나눔을 기억해 준다는 사실에 우리 가족뿐 아니라 하늘에 있는 석민이 역시 따뜻한 추석을 보낼 것 같다.”라고 전했다.

지난 26일, 생존 시에 장기를 기증한 리빙도너 475명과 뇌사 장기기증인 유가족 300가정 및 각막과 시신기증인 유가족 75가정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이 담긴 추석 선물이 전달됐다.

## 월드뷰티헨즈 한가위 밥사랑 국악공연 잔치 열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전할 수 있어 기뻐”

소셜서비스NGO (사)월드뷰티헨즈(회장 최에스티)와 해돋는마을(이사장 장현일 목사)이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10월 2일(목) ‘추석 한가위 밥사랑 및 국악공연 잔치 및 선물전달식’을 마련했다.

이날 초청된 쪽방촌과 독거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식사와 함께 선물을 증정했다.

장현일 이사장은 “소의되고 어려운 쪽방촌과 독거어르신께 사랑의 밥퍼와 함께 흥겨운 국악 공연을 통해 깊은 감동을 전하며, 생필품 선물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전달할 수 있어 기쁘고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장민욱 사무총장(해돋는마을)의 사회로 고독성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특히 추석 한가위를 맞아 국구무형문화재 제29호 서도소리 보유자인 이문주 목사와 김문에 무용단장 김문에 교수가 함께해 국악공연을 펼침으로 즐거운 시간을 선물했다.

아울러 거동이 불편해 찾아오지 못하는 독거 어르신들을 직접 찾아가 ㄱ뽕팩트 후원한 따뜻한 사랑과 위로의 선물을 전하기도 했다.

풍부한 미네랄을 함유해 쓰임새와 효능 무궁무진

## 최고의 ‘365일 신안비금천일염’

천혜의 자연환경을 갖춘 청정지역 신안에서 깨끗한 해수로 생산

세계 5대 갯벌 중 하나인 청정지역인 전남 신안의 천혜의 자연 환경에서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되는 신안천일염은 풍부한 미네랄로 인해 그 쓰임새와 효능이 무궁무진한 식품입니다. 한국 최고의 천일염은 바로 신안 천일염입니다.

천일염은 고혈압에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을 많이 섭취하면 분명한 것은 고혈압에 안 좋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네랄이 풍부한 좋은 소금(천일염)을 잘 사용하면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일반소금은 미네랄이 별로 없거나 극히 미량이라고 합니다. 탈수할 때 강제로 수분이 빠져나가면서 미네랄도 함께 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완한 제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제가 써본 결과 음식맛이 확 달랐습니다. 재료 고유의 깊은 맛을 잘 살려주더군요. 우리가 생산하고 있는 신안천일염도 청정지역 신안의 깨끗한 해수와 적정 일조량으로 생산하고 있어 미네랄이 풍부해 그 어떤 소금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습니다.

### 일반염과 천일염의 차이는?

1. 정제염은 100%로 염화나트륨이다. 반면에 천일염은 85% 염화나트륨, 15%는 칼슘, 칼륨, 마그네슘 등 미네랄이다. 칼슘, 칼륨, 마그네슘은 나트륨을 체외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춘다.  
2. 간장, 된장, 고추장, 젓갈, 김치를 만들 때 천일염을 써야 맛과 풍미가 좋아진다. 발효균이 정제염보다 천일염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 천일염은 어떻게 만드나요?

천일염은 태양열, 바람 등 자연을 이용하여 해수를 저류지로 유입해 바닷물을 농축시켜서 만든 소금이다. 천일염의 주요 산지는 지중해, 홍해 연안의 각국을 위시해 미국, 인도, 중국 등 각 해양연안에 많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서해와 남해에서 주로 생산된다. 천일염의 염도는 일반적으로 90% 내외이고, 색상은 백색과 투명색이 있으나 한국산은 기상조건으로 염도 80% 내외의 백색이다.

### 천일염 만드는 방법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염분을 태양열, 풍력, 자연력에 의해 포화 함수로 만들어 결정시킨 것으로 우리나라 서 남해에서 많이 생산되며 염도는 85~88%정도이다. 계절에 따라 맛의 차이가 나며 30도 정도의 물의 온도를 맞춰 생성된 소금이 가장 좋다.

■ 가격 20kg 1포 37,000원(택배비 포함)      ■ 은행계좌 302-1777-9898-51 농협은행 김영국

### 할렐루야!

그동안 성원해 주신 많은 교회 성도님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 전해 올립니다. 저희 신안(비금도) 천일염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간수가 잘 빠진 2022년도산의 품질 좋은 제품으로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식당 또는 교회 성도님들이 단체로 구입할 경우 택배비없이 다량구매 특별할인가격으로 공급해 드립니다.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알려 드리겠습니다.

상담 문의 010-3000-7602  
(연중무휴 365일 주문접수)



믿음으로 생각 깊은 곳으로

이억주 목사 // 한국교회언론회 명예대표·논설교문, 칼빈대 전 교수, 대석교회

## 하나님을 미소 지으시게 하라



오스발트 슈펜글러(Oswald Spengler)는 그의 저서 「서유럽 몰락」에서 서구 유럽의 몰락은 기독교의 몰락이라는 의미심장한 예언적 진단을 했는데, 그의 사후 80년도 못되어 누구나 알 수 있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한국교회가 우리나라의 독립과 근대화에 기여하고 함께 해온 역사적 사실을 사람들은 점차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는 교회구성원들이 생각하고 바라는 것과 반대로 가고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말씀에서 배우고 역사에서 배워서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복음적 가치에 충실했던 국가들은 흥왕했었다는 것을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기독교 국가 영국이 해가지지 않던 영화를 구가할 때 그 뒷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충만했던 것을 봅니다. 엘프레드 대왕(Alfred the Great, 849년~899년) 치세에 영국은 국가적 통일을 이루었는데,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엘리자베스 1세(Elizabeth I, 1533년~1603년)는 유럽 변방의 작은 섬나라에 지나지 않던 영국을 대영제국으로 일으켜 세우는 데 기초를 세웠습니다.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빅토리아(Victoria, 1819년~1901년) 여왕의 치세에는 전 세계에 걸쳐 영국의 영토가 있었으므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불렸던 대영제국의 최전성기였습니다. 이때에도 기독교 신앙으로 영국을 통치했던 것입니다.

잘 알려진 대로 미국은 청교도 정신 위에 건립된 국가로써 현재도 세계 최강국의 영광을 누립니다. 이것은 우연의 일치가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국 대통령이 사용하는 국새(國璽) 뒷면에 새겨진 글이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애누트 쾨티스(Annuit Coeptis)의 글인데 그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을 좋아하신다.”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일에 미소

를 지으신다”는 뜻입니다.

국가가 어떤 일을 승인할 때 찍게 되는 도장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한다는 확신이야말로 얼마나 당당하고 확신있는 일이었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께서 미소 지으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Annuit Coeptis)는 주장을 인정받게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교회는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습니다.

먼저, 한국교회 복음진리를 굳게 지켜감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방법론이 아니라 복음진리를 붙잡아야 합니다. 비복음적인 방법론에 목매는 모습은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이제 복음의 본질, 복음진리를 굳게 잡고 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절대 진리를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행 4:12).

다음으로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외침과 같이 하나님으로 하나님 되시게 해야 합니다(Let God Be God).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다음으로 교회가 선한 일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연합단체의 본질은 한국교회의 힘을 잃게 했습니다. 사본오열도 모자라 보입니다. 정치 코미디 멘트처럼 ‘이게 뭐니까?’ 그 과정에서 파생되는 온갖 부끄러운 모습은 그대로 세상에 전파됩니다. 그 파급력은 한국교회 전체가 피해를 떠안았습니다. 이제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되기를 힘쓰라고 하신 말씀대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조직체의 물리적인 통합이 어렵더라도 선한 일에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시 133:1)

### 초대시

전혜수 // 은혜와진리교회 권사

## 아름다운 중독

중독... 이 단어가 주는 느낌은

두려움이고 어두움이며

외로움과 절망스러움입니다.

그 이름표의 사람은

그늘진 얼굴과 한없는 한숨과

소망없는 단어의 나열들뿐입니다.

술.. 담배.. 마약.. 인터넷.. 중독자

그런데 갑자기 중독이 되고 싶은 간절함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샘물처럼 솟아납니다.

그 어두움의 단어가

갑자기 찬란한 빛으로 변하여

내 마음의 소원처럼 자리합니다.

도저히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지 못하여 끌려 다니는 자를

중독자... 이렇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한 영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 중독자가 되고 싶다는 열망이

사도 바울처럼 내 마음을 점령합니다.

하루도 중독 된 것을 하지 않으면

견디내지 못하여 몸부림치는 사람처럼

그렇게 영혼을 향한 전도 중독자가 되고 싶어집니다.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내속에 인이 베어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중독자가 되고 싶다는 간절함의 아침입니다.

생일을 맞이하는 새벽에...

### 사설

## 안보 현실 직시해야 한다

제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대통령은 “강력한 자주국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며 “한·미 동맹 기반 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연합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혔다. 자주국방과 전작권 전환은 우리 군이 반드시 나아가야 할 과제이자, 국가의 자존과 주권을 상징하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구호가 아니라 냉철한 현실 인식과 철저한 대비 위에서 추진되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업이다.

현 정부는 국정과제에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명시하며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전작권은 전시에 한·미 연합전력을 총괄 지휘하는 권한으로, 상징적 주권 회복을 넘어 실질적인 전쟁 지휘체계의 전환을 의미한다. 한·미 양국은 2014년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했으며, 현재는 마지막 단계인 완전임무수행능력(FMC) 검증을 준비 중이다.

문제는 그 ‘조건’이다. 전작권 전환의 세 가지 조건은 △연합방위를 주도할 군사적 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동맹의 포괄적 대응 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 환경이다. 첫 번째는 우리 군이 준비할 수 있으나, 나머지 두 가지는 우리 뜻만으로 확보하기 어렵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인식이 정부 내에서도 일관되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의 확장억제(핵우산)를 어떻게 제도적으로 보장받을 것인가는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더욱이 최근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와 중국의 대북 밀착 등 한반도 주변 정세가 급변하는 가운데, 한·미 연합훈련 일부가 연기되고 ‘호국훈련’까지 연기 검토 중이라는 소식은 국민의 불안을 키운다. 자주국방은 동맹을 약화시키는 길이 아니라, 더욱 굳건한 신뢰와 협력을 통해 완성되어야 한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전작권 조기 전환을 고려한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전작권은 정치적 시한으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보 환경이 전제되어야 한다.

한국교회는 정부가 자주국방을 추진하되 하나님의 지혜 안에서 분별력을 잃지 않도록 기도해야 한다. 또한 다음 세대에게 나라사랑과 안보의식을 바르게 심어주며, 신앙의 평화가 곧 국가의 평화임을 일깨워야 한다.

## WEA반대, 바른복음전파...교회의 사명

한국교회가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고 배도와 배교의 물결을 막기 위해 오는 10월 27일(월) 오후 1시부터 사랑의교회(오정현 목사 시무)에서 열리는 WEA서울총회 반대집회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번 집회는 한국교회가 지난 수년간 경험한 WCC 제10차 부산총회(2013년)와 WEA 세계지도자대회(2016년) 등을 통해 드러난 신학적 혼합주의와 종교다원주의의 폐해에 대한 경각심에서 비롯됐다. 집회 주최 측은 “WEA가 로마 가톨릭과의 교류, 신앙과 진리의 절대성을 희석시키는 신학적 경향을 보여 왔다”며 “이는 한국교회와 성도들을 배도의 길로 이끌 수 있기에 분명히 반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주최 측은 이번 집회를 통해 △복음의 진리 수호 △종교혼합주의와 배교 경계

△다음 세대 신앙 지키기라는 명확한 목표를 제시하며 한국교회의 깨어있는 참여를 요청했다. “교회의 타락을 막고 순수한 복음을 보존하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라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번 반대집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 일어나는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집회는 당일 오후 1시에 열리며, 전국 각지에서 모이는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 참여가 예정되어 있다. 주최 측은 “작은 교회, 큰 교회 구분 없이 모두가 함께 기도하고 행동으로 동참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복음의 본질을 붙들 수 있다”며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 “사랑하는 자들이,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요일 4:1)-한국교회가 복음의 본질을 굳게 붙드는 깨어 있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

## 목양신문

1990년 2월 23일 등록 다-1181 / 재등록 서울 다-07857 주간

●편 집 고 문 : 정책위원장 조몽목 목사  
●발행 겸 편집인 : 편집국장 박한근 목사 ●인쇄인 : 배성환

●연 락 처 : 편집국 ▶ (02)2677-9935~6, 구독문의▶(02)2677-9937  
광고국 ▶ (02)2675-5183 FAX ▶ (0504)027-0897  
웹하드 : ID-mok677 / PW-5277, e-mail mok2677@naver.com  
07205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로 22 다길 5

●본보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온라인계좌 : 국민은행 061701-04-128988 박한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 제7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 본 교단 제74차 총회 제3회 실행위원회를 교단 헌법 제86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소집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일 시 : 2025년 11월 20일(목) 오후 1시 (11시 30분부터 점심식사)
- 2) 장 소 : 은혜와진리교회 안양성전(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로 193)

\*점심식사 등 준비관계로 참석여부를 10월 31일(금)까지 총회본부(02-2675-5181~3)

또는 팩스(02-2677-5181)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10월 18일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JESUS ASSEMBLIES OF GOD IN KOREA

총 회 장 목사 엄 하 석  
총 무 목사 오 세 준